

서른살 5.18 ... '오월의 꽃' 예술로 피어나다

“관객 교감’ 역동적 예술 보여줄 것”

“콘스트 할레(Kunsthalle)는 다양한 서브컬처(비주류문화)를 대중들과 함께 즐기고 소통하는 새로운 개념의 복합문화 공간입니다. 기존의 미술관이 주로 소장 가치가 높은 컬렉션을 전시한다면 콘스트 할레는 관객들과의 교감을 중시하는 역동적인 예술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콘스트 할레 광주’ 프레오피(12일)를 앞두고 10일 광주를 찾은 톰 부에서먼(46·플래튼 콘스트할레 대표)은 “콘스트 할레 광주”(한글명·아시아 문화마루)는 베를린, 서울 난현동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라면서 “콘스트 할레가 문화중심도시 광주의 위상을 한단계 끌어올리는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플래튼 콘스트할레의 톰 부에서먼 대표.

‘콘스트 할레 광주’ 프레오피 톰 부에서먼

오늘부터 옛 도청앞 컨테이너박스서 전시

콘스트할레 광주는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추진단(단장 이병훈)이 오는 2014년 개관하는 아시아 문화전당을 시민들이 미리 체험할 수 있도록 한 일종의 쇼케이스. 오는 7월30일 정식개관에 앞서 12일부터 5·18 제30주년 기념 특별전으로 마련된 ‘오월의 꽃’(12~6월13일)이 전시된다.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용어인 콘스트할레는 독일어로 ‘미술품을 직접 소장하지는 않되 다양한 분야의 현대미술을 선보이는 전시관’을 일컫는다. 참신한 사고와 감성을 지닌 작가들의 그래픽, 미디어아트, 퍼포먼스 등 비주류문화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전달한다. 신 개념의 전

시공간인 만큼 수출용 컨테이너 박스와 같이 전시관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뜨린다.

콘스트할레 광주의 경우 수출용 컨테이너박스 29개를 쌓아 올린 건축면적 520㎡(158평)에 연면적 1019㎡(309평) 규모로 만들어졌다. 4각 입방체형태의 컨테이너 박스가 광장을 중심으로 마치 성벽처럼 둘러져지면서 중앙에 매우 단순하고 견고한 형태의 공연장과 전시장이 들어서게 된다. 톰 부에서먼은 지난 2000년 잠재된 대중들의 문화감성을 이끌어내자는 ‘문화개발(cultural development)’를 기치로 창설된 아트그룹 플래튼 콘스트할레의 주역이다. 최근 국제미술계에 급부상하고 있는

아시아 문화에 주목한 그는 지난해 서울 난현동에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동지를 열었다.

“다양한 문화를 열린 사고로 수용하는 콘스트할레의 지향점은 아시아의 문화중심도시를 표방하는 정신과 일맥상통합니다. 베를린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 약 4000여명의 아티스트와 연결된 네트워크는 콘스트할레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오는 2014년까지 이같은 인적 교류를 매개로 광주시민들에게 역동적인 예술을 보여줄 계획입니다.”

콘스트 할레 광주는 ‘오월의 꽃’이 폐막되면 추가 공사를 마무리해 오는 7월30일 정식개관을 시작으로 약 한달간 아시아 문화전당 콘텐츠 전시회, 라이브 퍼포먼스, 야외영화 상영 등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진화된 5·18’ 문화로 형상화 모색

5·18 민주화운동 30주년을 맞아 광주정신의 문화·예술적 가치를 조명하는 국제학술회의가 11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전남대 용지관 광주은행에서 열렸다.

이번 국제학술회의는 ‘오월의 꽃’부대 행사로 고은 시인과 세계적인 건축가이자 예술가인 아이 웨이웨이, 영화감독 알프레도 자 등 내로라하는 국내외 문화·예술인들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멜리사 추 아시아사이아터 미술관장, 마이 카타오카 도쿄 모리미술관 수석큐레이터 등 국제 미술계의 별들이 대거 참여했다.

‘예술의 두 얼굴-대중과 예술, 그리고 시장’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국제 학술회



5·18민주화운동 30주년 기념 ‘오월의 꽃’ 국제학술회의가 11일 전남대 용지관 광주은행에서 열렸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전남대에서 광주정신 조명 국제학술회의

고은 시인·국제 미술계의 별들 대거 참여

의는 ‘예술의 저항적, 실험적 가치와 예술 운동’ ‘시장지배현상의 대두와 비평의 쇠퇴에 대한 대안’ ‘예술과 미디어, 시장, 그리고 관객’ 등 3개의 섹션으로 나눠 현대 예술의 시장지배와 시장중속적 현상에 대한 주제발표와 심층토론을 벌였다.

본격적인 학술회의에 앞서 제8회광주비엔날레 주제인 ‘만인보’의 저자 고은 시인이 광주정신의 절정을 체화한 연작시 ‘만인보’의 탄생 배경과 광주비엔날레 주제 선정이 갖는 의미에 대해 발제했다.

고은 시인은 “광주민주화운동의 제안에 하나의 미적 세계를 헌정하는 광주비엔날레가 해를 거듭하는 동안 독자적인

창의를 과시해온 공헌은 광주의 피가 되고 있음직한 ‘민주주의는 아름답다’라는 정치미학까지도 아우르는 총정과 함께 한층 의미심장하다”고 강조했다.

발제에 이어 최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 위원장과 고은 시인은 5·18 30년 이후의 광주정신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프로젝트에 있어 광주정신의 역할에 대해 대화를 벌였다.

또 영국 골드스미스 칼리지의 리처드 노블 교수가 ‘예술의 저항적, 실험적 가치와 예술운동’, 알프레드 자와 멜리사 추가 각각 ‘시장지배현상의 대두와 비평의 쇠퇴에 대한 대안’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

을 이어갔다.

국제학술회의 이틀째인 12일에는 베이징 올림픽 주경기장 ‘나오차오’(鸟巢)를 디자인한 중국 현대미술가 아이 웨이웨이와 이용우 광주비엔날레재단 상임부이사장이 예술과 시장 등 현대미술의 다양한 담론을 놓고 대담한다.

이밖에 일본의 대중문화비평가인 히사시 무로이(요코하마대학 교수)와 마이 카타오카 도쿄 모리미술관 수석큐레이터가 ‘예술과 미디어, 시장 그리고 관객’을 내용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국제회의를 주관한 이용우 상임부이사장은 “이번 심포지엄은 예술과 대중(사람)이 무엇인지를 규명해보는데 목적이 있다”며 “5·18과 광주의 진화된 형상을 어떻게 문화·예술적으로 형상화할지 모색해 보는 중요한 자리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제 55회 호남예술제 관악 수상자

<p>〈심사위원〉 김을근(충남대 교수) 신상호(전북대 교수) 한기세(전 서울시향 수석) 황성규(전남대 교수) 유영대(충남대 교수)</p> <p>◇플루트(초등부 3·4학년) ▲금상 김서현(광주중원3) ▲은상 박지현(광주중원3) 김현지(광주중원3)</p>	<p>▲동상 선우석(광주중원4) 박주연(살레시오4) ◇플루트(초등부 5·6학년) ▲금상 송도희(불로6) ▲은상 장민영(광주교대광주부설6) 김지연(살레시오6) ▲동상 은혜인(서광6) 민수빈(완도중앙6) ◇플루트(중등부)</p>	<p>▲금상 정세운(운림1) ▲은상 임나경(동아여자2) ▲동상 박지연(운암2) 김수연(지산3) ◇플루트(고등부) ▲최고상 변예은(광주예술2) ▲금상 강민아(전주예술2) 박지애(전남예술1)</p>	<p>김수미(전남예술3) 지아셀(광주예술3) ▲은상 김수빈(광주예술2) 황지우(여양3) 조아름(전주예술3) ▲동상 강소영(전주예술2) 임유지(조선대학교여자1) 류가형(서강3) 박지수(여수정보3) ◇클라리넷(초등부 1·2학년) ▲은상</p>	<p>김남현(광주중원2) ◇클라리넷(초등부 5·6학년) ▲금상 강성호(광주중원6) ▲동상 박상언(불로6) ◇클라리넷(중등부) ▲은상 박성현(전주예술2) ▲동상 김승현(전주예술1) 박세현(광주중원1) 임지현(광주동성여자3)</p>	<p>◇클라리넷(고등부) ▲금상 오정민(광주예술3) 정수빈(전주예술3) ▲은상 한예린(광주중원여자3) ◇마림바(초등부 3·4학년) ▲최고상 마원빈(복곡미향3) ◇마림바(초등부 5·6학년) ▲동상 이승민(광주중원5) ◇오보에(중등부) ▲은상</p>	<p>장지혜(여도3) ◇오보에(고등부) ▲은상 이한빛(광주제일1) 강대현(여수공업3) ◇호른(중등부) ▲해당사항 없음 ◇호른(고등부) ▲금상 문주현(광주예술2) ◇색소폰(중등부) ▲은상 김동하(풍암1) ◇트럼펫(중등부)</p>	<p>▲동상 진윤기(금당1) ◇트럼펫(고등부) ▲동상 이정화(광주경신여자3) ◇트럼펫(고등부) ▲금상 양지원(세종1)</p>
--	---	--	---	---	---	--	---

* 최고상 수상자는 컬리언 물사진 2매를 5월 18일까지 본사 문화홍보국으로 제출 바랍니다.

영 / 화 / 안 / 내

메가박스

1관	아이언맨2 (12세)	최고급편
2관	아이언맨2 (12세)	
3관	구르몽 버서난 달처럼 (15세)	
4관	아이언맨2 (12세)	
5관	구르몽 버서난 달처럼 (15세)	
6관	브러더스 (15세)	
7관	대한민국1% (12세)	
8관	베스트셀러 (15세)	
9관	아이언맨2 (12세)	

• 호남주치타워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관람료에 한함) : 2시간 30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영원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구.련덕약국사거리 ♥에메 1544-0600

콜롬버스시네마

1관	대한민국1% (12세)
2관	대한민국1% (12세) / 천정엄마(15세)
3관	아이언맨2 (12세)
4관	아이언맨2 (12세)
5관	베스트셀러(15세) / 브라더스 (15세)
6관	베스트셀러(15세) / 토이스토리, 토이(15세)
7관	아이언맨2 (12세)
8관	구르몽 버서난 달처럼 (15세)
9관	구르몽 버서난 달처럼 (15세)
10관	아이언맨2 (12세)

3D디지털 상영!
4/1(목) 상주영, 야남전 동시개봉!!

1588-7941 상영현황 및 발명-(1번 or 2번)→0번

씨너스전대

1관	아이언맨2 (12세)
2관	천정엄마 (15세) / 베스트셀러 (15세)
3관	블러드사이드 (12세)
4관	구르몽 버서난 달처럼 (15세)
5관	브러더스 (15세)
6관	아이언맨2 (12세)
7관	아이언맨2 (12세)

씨너스전대 3D(4K) 상영!!
• 무료주차 3시간 • 아티스트사인 이벤트

색깔있는 영화상영 • www.cinusa.co.kr / 1544-0070
북구보문소 건너편 ☎ 511-1000

제일시네마

1관	아이언맨2 (12세)
2관	아이언맨2 (12세)
3관	대한민국1% (12세)
4관	구르몽 버서난 달처럼 (15세)
5관	천정엄마 (15세) / 베스트셀러 (15세)

* 무료주차 3시간 *
ARS 전화예매 문의 227-1960
(광주 세무소 옆 호남타워주차장 - 단, 입장권 구매 고객에 한함)

새로운 기쁨 • www.prhussinema.com / www.jeilsinema.co.kr •
중장로 3기 ♥ARS 전화예매 ☎ 227-1960